

디자인 수다 11

지폐 디자인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이제 최종 작업을 인쇄소에 넘기는 일만 남았다. J는 이때가 가장 신경이 곤두섰다. 예전에 광고 포스터 작업을 하다 오타 때문에 경위서를 쓴 일이 있었다. 꼼꼼하게 검수를 안 한 건 아니었다. 막판에 수정 사항이 추가되면서 최종 파일을 잘못 저장했던 게 문제였다. 어쨌든 당시 J는 회사를 그만둘 만큼 디자인이 싫었지만, 호주 여행 후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인쇄소에 이번 프로젝트만 넘기면 휴가를 내고 통영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무사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 J는 여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중 여행용 가방 안 주머니에서 호주 지폐 50달러 한 장을 발견했다. 지폐를 보자마자 J의 입가에 미소가 자연스레 번졌다. 호주 여행에서 제대로 힐링한 것처럼, 이번 통영 여행도 그랬으면 했다. 통영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은 J는 다시 50달러를 꺼냈다. 고매한 느낌의 여성이 그려져 있었다.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 사회개혁가이자 호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에디스 코완(Edith Cowan)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연관 검색어로 ‘오타’가 따라 나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J는 관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폐 디자인과 오타

호주 중앙은행은 2018년 10월, 약 23억 원에 달하는 50달러 지폐를 발행했다. 그런데 그다음 해인 2019년, 한 블로거가 새 지폐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게시하자, 호주 중앙은행은 발각 뒤집혔다. 에디스 코완의 등 뒤엔 1921년 그녀가 한 연설문의 일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 블로거는 연설문 중 ‘Responsibility’라는 단어에 세 번째 ‘i’가 탈락한 것을 발견했다. J는 소름이 돋았다. ‘화페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오랜 정성을 들여 만

드는 유독 엄격한 과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웬지 모를 위안도 받았다. ‘그렇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디자이너에게 인쇄 사고란 며칠 밤을 지새우게 하는 공포였다. J는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폐에도 책임이라는 단어에 ‘i’가 빠졌는지 찾아보았다. 글씨가 너무 작아 핸드폰 카메라를 돌보기 삼아 살펴봤지만, 아쉽게도(?) J의 지폐는 정상이었다. J는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카메라로 여기저기 확대를 해보며 지폐의 다른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플레



호주 50달러 오류 부분 / dunyanews.tv

시를 아래에서 위로 비춰보니 은화(숨어 있는 그림)가 보였다. 그제야 J는 처음으로 지폐 디자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지폐는 J가 놀랄 만큼 다양한 디자인과 패턴으로 수놓아져 있었다. 게다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위조방지를 위해 각종 장치가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통영으로 가는 버스에서 J는 지루할 틈이 없었다.

화폐 디자인, 어떤 요소가 들어갈까?

화폐 디자인은 크게 ‘컨셉트 디자인(Concept Design)’과 ‘은행권 화 디자인(Banknotisation Design)’으로 나눌 수 있다. 컨셉트 디자인은 역사적, 문화적 사실을 공공 디자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수정하는 것이고, 은행권 화 디자인은 위조방지 기술이나 소재 등 기능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이다.

우리나라 화폐 디자인 과정은 이렇다. 한국은행이 주제 선정 후 조폐공사에 디자인을 의뢰하면 조폐공사가 자료조사를 하고 위조방지 요소를 설계한 후, 아이디

●●

**컨셉트 디자인은
역사적, 문화적 사실을
공공 디자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수정하는 것이고,
은행권 화 디자인은
위조방지 기술이나 소재 등
기능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이다.**

●●

어 스케치를 통해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한다. 그런 다음, 평판과 요판(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 부분)을 분리해 정밀 그래픽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비로소 화폐 디자인이 확정된다.

화폐의 기능에는 가치 교환 이외에도 문화 전달의 역할도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적 요소를 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상징적인 인물이 주가 되고 인물과 관련된 요소를 앞뒷면에 세밀하게 그려 넣는다. 국제 은행권협회(IBNS)는 연간 명망 있는 ‘올해의 지폐’를 선정하는데, 2009년에 신사임당 오만원권도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수상하진 못했다. 2020년에는 멕시코 은행에서 발행한 100페소가 올해의 지폐로 선정되었다. 이 지폐엔 시인이자 유럽 최초의 페미니스트인 후아나 수녀(Juana Inés de la Cruz)가 그려져 있다. 물론 인물 이외의 것을 지폐에 넣는 예도 있다. 유럽은 유로화로 통합된 유럽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건축 양식을 지폐에 선보였고, 노르웨



멕시코 100페소
/ www.theibns.org



각각의 유로 지폐 건축 양식들, €5: 고전, €10: 낭만, €20: 고딕, €50: 르네상스, €100: 바로크와 로코코, €200: 19세기 철과 유리 양식 / www.ecb.europa.eu



노르웨이 200크로네 지폐 / www.banknoteworld.com



'77246' 구 오천 원 위조지폐 / 연합뉴스



홀로그램이 없는 (다) 오천 원권 / namu.wiki



점선 홀로그램이 있고 점자 크기가 커진 (라) 오천 원권 / namu.wiki

이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생선인 대구를 지폐에 넣었다.

화폐 디자인과 보안

화폐는 문화 전달의 기능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이다. 그래서 업계에선 화폐 디자인을 보안 디자인이라고도 한다. 많은 나라가 인물을 지폐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는 이유도 문화적 가치 전달뿐만 아니라 보안과도 관련이 있다. 인물의 이목구비는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위조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선 위조지폐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4년부터 약 9년간 오천 원권 위조지폐로 약 2억 5천만 원을 만들어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 일련번호가 77246이라 '77246 위조지폐 사건'이라고 불렸다. 잡힌 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컴퓨터 그래픽 전공자였다. 꼼꼼한 재능을 엉뚱한 곳에 쓴 범인의 작업은 이랬다. 먼저 앞뒷면을 프린팅하고 은화 용도로 얇게 한 장을 더 인쇄했다. 그리고 그것을 앞 뒷면 사이에 넣어 붙여 만들었다. 위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2007년 오천 원권만 새로 만들어 발행한다. 위조된 오천 원을 구멍가게에서 사용했던 범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로 2013년에 탈미가 잡혔다. 오천 원 신권에는 더 강력한 위조방지 요소가 더 첨가되었는데, 홀로그램 프린팅과 기울이면 요판 잠상이 보이는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스위스 8차 지폐 시리즈 / platform.keesingtechnologies.com



스위스 9차 지폐 시리즈 / studyinginswitzerland.com

스위스의 프랑

스위스 지폐는 세계에서 가장 위조가 어렵다고 평가받을 뿐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인정 받는다. 금융 강국이다 보니 지폐의 보안이 매우 엄격한 건 당연해 보인다. 1907년 첫 지폐 디자인을 시작으로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9번이나 디자인을 교체했다. 위조지폐가 나올 것을 미리 대비해 예비 디자인을 준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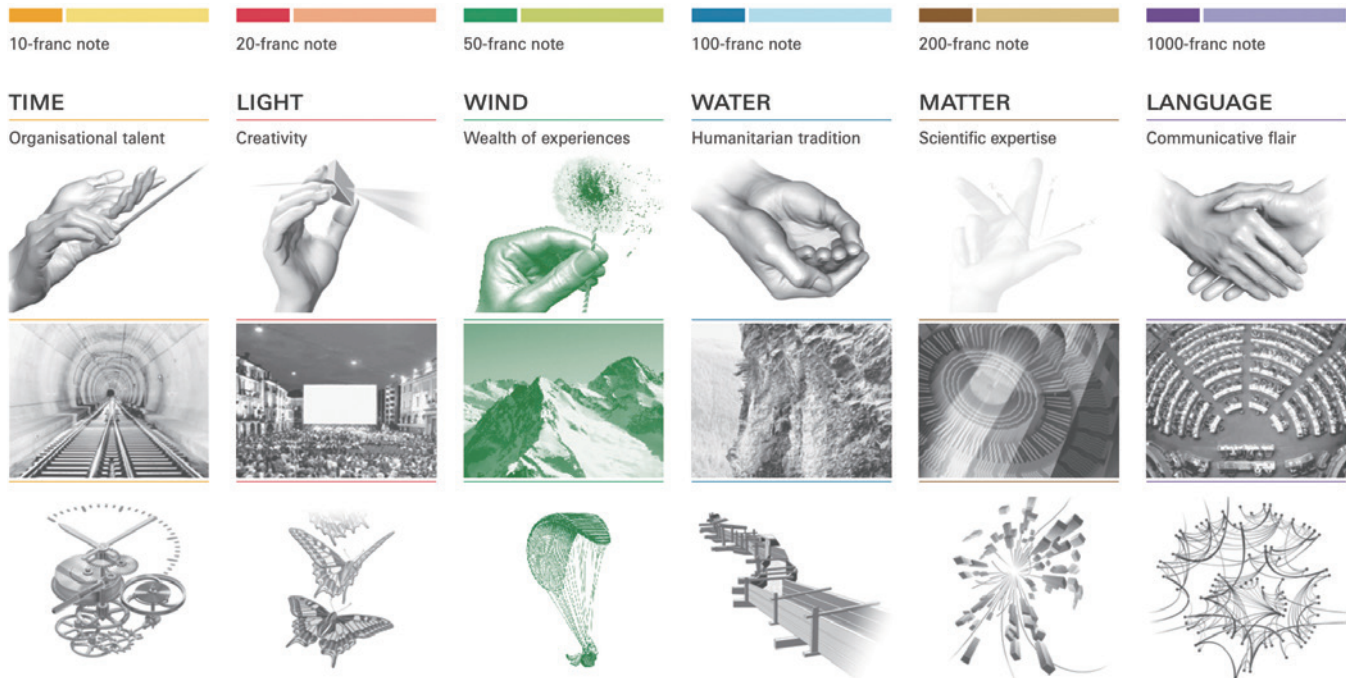
「는 스위스 화폐가 아름답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스위스 지폐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 자코메티(100프랑)도 들어있었다. 대부분의 인물 도안은 지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스위스 지폐의 인물은 2분의 1로 가득 차 있고 독특하게도 세로형이었다. 이 8차 인물 지폐 시리즈는 1995년에 발행됐지만, 세계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디자인이라 지금 봐도 디자인이 매우 정교했다. 호주 달러와 비교해보니 스위스 8차 지폐가 좀 더 추상적이라고 「는 생각했다.

8차도 충분히 현대적이고 아름다웠지만, 스위스는 9차 디자인을 준비했다.

스위스 국립 은행은 2005년 ‘Switzerland open to the world’라는 주제로 스위스 지폐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재밌게도 이 공모전에서 1등 상을 받은 작품이 최종 9차 지폐 디자인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미학적 평가와는 달리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보편적이라 판단한 2등 작품을 새 지폐 시리즈의 모티브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2등 상을 받은 마누엘라 프룬더(Manuela Pfunder)에게 디자인의 전권을 넘긴다. 12명의 전문가와 함께 마누엘라는 당선작을 토대로 모티브를 발전시켜 현행권인 9차 스위스 지폐 6종을 탄생시켰다.

9차 스위스 지폐 시리즈에는 인물이 없다. 대신에 전형적인 스위스의 상징인 시간, 빛, 바람, 물 등이 주요 모티브가 되었다. 50프랑의 주요 모티브는 바람이다. 손과 지구본이 9차 시리즈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데, 손 모양이 주요 모티브에 따라 변주된다. 50프랑에는 민들레를 잡은 손이 등장한다. 바탕에는 화살표 패턴



스위스 9차 지폐 요소 / www.snb.ch



만 원 이미지 일부 / 기획재정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



호주 폴리머 지폐 이미지 일부 / 기획재정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



1973년 발행된 500원 지폐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 namu.wiki



현행 100원 동전에 이순신 장군 모습
/ moneycollection.tistory.com

이 바람을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뒷면은 등고선으로 표현한 스위스의 산과 그 위를 활강하는 패러글라이딩이 자리 잡고 있다.

9차 시리즈를 통해 스위스는 최첨단 위조방지 기술도 선보였는데, 각각의 지폐는 손으로 느끼거나 기울여 보거나 빛을 비추는 등의 행위로 다양한 스위스 국기를 찾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게다가 핸드폰 카메라로 지폐를 보면 홀로그램이 생겨 위조판별이 가능하도록 만든 앱도 선보였다.

지폐, 무엇으로 만들까?

문화적 전달과 보안뿐만 아니라 지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내구성이다. 조그만 부주의에도 찢어진다가나 금세 색이 바래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지폐의 소재도 화폐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폐의 소재는 종이가 아니다. 1988년부터 호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합성물인 폴리머로 지폐를 만든다. 이 지폐는 물에 씻어도 쉽게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 현재

폴리머 지폐를 사용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오만 원 권을 만들 때 폴리머를 염두에 뒀지만, ATM 부품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무산됐다. 대신 우리나라 지폐는 폴리머만큼은 아니지만, 100% 순면이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는 호주와 한국의 소재를 합친 경우다. 중간 면은 폴리머이고 표면은 순면으로 되어 있어 더욱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J는 화폐 디자인이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보안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기 위한 종합적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통영에 도착한 J는 바다가 보이는 식당을 찾아 충무 김밥을 시켰다. 커다란 창을 통해 바라본 바다는 평화로웠다. 키 작은 집과 어수선했던 풍경도 좋았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순신 공원에 갈 생각이었던 J는 식당에 비치된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쉽게도 동전이 없었다. 문득 100원에 새겨진 이순신의 표준 영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떠오르지 않았다. 점점 동전이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J는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도 지폐 디자인 공모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에서 이순신의 새로운 초상을 기획하고 다양한 요소를 이리저리 배치해 보느라 통영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창 앞에서 J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